

# 말라가는 금일저수지...2일 급수·4일 단수 '물 고통'

### 심각한 가뭄 현상 완도 금일도 가보니

“이러면 물 나오는 날(15일)까지 씻기는 커녕 먹을 물조차 없을 것 같은데”

지난 11일 찾아가 안도군 금일읍 동송마을 주민들은 15년 만에 맞는 단수로 인해 불편을 겪고 있었다.

박동춘(57)씨는 이날 광주일보취재진에게 물 사용내역을 들어보았다.

박씨는 지난 2월부터 한국수자원공사(K-water) 완도수도지사에서 단수를 예고하고, 지난 10월 말부터는 제한급수 시행을 미리 알려와 마당에 11크기의 물탱크를 마련했다.

지난 7일부터 단수가 시작된 이후 박씨는 용돈 구입장에 적듯 물을 사용할 때마다 사용량을 기록해 남은 양을 가능하면서 버리고 있다.

과거에도 단수 경험이 있다는 박씨는 절반 이하의 물이 담긴 물탱크를 바라보며 “세수할 물도 재활용하면 설거지나 다른 곳에 쓸 수 있다”며 “이렇게 하지 않으면 받아둔 물로 4일간 버티는 것은 쉽지 않다”고 혀를 내둘렀다.

근처에서 중식당을 운영하는 조이숙(여·55)씨는 제한급수에 따른 부담이 다른 사람보다 더 심하다고 했다. 식당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물이 일반가정보다 더 많기 때문이다.

조씨는 “단수 첫날(7일)에 생각없이 물을 썼다가 물을 절반 넘게 써서 남은 3일 동안 근육을 치렀다”면서 “2이 넘게 미리 물을 담아뒀지만 하루만에 절반 이상을 사용했다”고 말했다.

설거지에 필요한 물이라도 줄이기 위해 조씨는 어쩔 수 없이 일회용품 사용할 수밖에 없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식당 운영은 커녕 낮둥이 아이까지 키우고 있어 물 부족이 더 심각하다는 하소연이다.

조씨는 “나는 못 씻어도 아이는 씻겨야 하지 않겠나. 아기가 기저귀에 대변을 보고 난 뒤 물티슈로만

저수량 4.3%, 100일 뒤면 고갈

생일도서 물 가져와 저수지 공급

주민들 받아둔 물로 4일간 버려

“설거지 할 물이라도 줄이자”

일회용품 사용 교육지책도

“하루빨리 큰비 와서 해결되길”

댈아줄 순 없지 않냐”고 불편을 호소했다.

완도군과 완도수도지사는 완도군 금일읍에 지난 7일부터 ‘4일 단수, 2일 급수’의 제한급수를 단행했다. 단수기간에는 생활용수 뿐만 아니라 식수까지 모두 끊기게 된다.

금일읍 주민들이 식수와 생활용수로 사용하는 저수지는 금일 ‘용항제’와 ‘척지제’ 두 곳이다. 이들 저수지의 총 저수량은 52만 5000t이지만 현재 저수율은 4.3%(9400t)에 불과하다. 보통 하루 취수량이 1288t에 달해 당장 며칠만 사용해도 저수지가 아예 마르게 된다.

급기야 완도군은 급수차 4대를 동원해 인근 섬인 생일면 저수지에서 하루 200 t의 물을 금일저수지로 옮기고 있다. 생일면 주민들은 대부분 지하수를 사용해 저수지에 80%의 물이 담겨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가뭄이 이어지면서 지하수 관정도 메마르고 있어 물을 옮겨오는 것도 한계가 있다는 것이 완도군의 설명이다.

결국 이 상태가 지속되면 100일 정도 뒤 금일읍 저수지의 물이 완전히 고갈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러한 제한급수는 금일읍만이 아니다.

넙도리는 지난 5일부터 ‘1일 급수 6일 단수’를 현재까지 이어오고 있고, 소안면도 지난 11일부터



‘2일 급수 5일 단수’ 조치를 하고 있다.

완도에서 제한급수로 불편을 겪고 있는 주민은 총 3450여세대 6870여명이다.

주민들은 지난 2월부터 미리 예고된 제한급수로 평소보다 물을 아껴 쓰고 사비를 들여 물탱크를 설치하는 조치를 취했지만, 제한급수가 언제 끝날지 모른다는 불안에 시달리고 있다.

완도군과 완도수도지사로 딱히 해결책이 없거나



완도군 금일읍 저수지가 11일 바닥을 드러낸 채 물을 긴급 급수받고 있다 (왼쪽). 같은 날 금일읍 주민이 물이 나오지 않는 수도꼭지를 시험없이 돌리고 있다.

김남일(59) 완도군 금일읍 동송마을 이장은 “단수 기간이 늘어나면 주민들이 설치한 물탱크로만 생활이 불가능하다. 물을 아끼기 위해서 단수하고 있는데 물통을 추가로 구입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면서 “기우제를 해서 비가 온다면 기우제라도 하겠다. 하루빨리 큰비가 와서 해결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완도·사진= 민현기 기자 hyunki@ /완도=정은조 기자·전남총괄취재본부장 ejhung@

강한 모양새다. 지난 3개월 동안의 강수량은 평년 대비 51.1% 수준에 그쳤다.

겨울철에는 많은 비가 내리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하면 3개월 뒤에도 완도에는 가뭄경보가 심각단계에 머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에 완도군과 완도수도지사는 저수량이 계속해서 낮아지면 2일 급수 4일 단수를 6일 단수와 8일 단수까지 늘릴 예정이다.

## 광주·전남 올 315일 중 243일 ‘가뭄’ 주말 단비 왔지만 해갈에는 ‘역부족’

광주 31.6mm·완도 금일 22.5mm

주말 사이 광주·전남지역에 ‘단비’가 내렸으나, 올해 200여일이 넘게 이어진 가뭄을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지방기상청은 주말인 12-13일 전남 동부지역에 20-60mm, 그 외 광주·전남지역에 5-30mm의 비가 내렸다고 밝혔다.

지역별로 보면 광주 31.6mm, 나주 22.5mm, 담양 32mm, 여수 21.8mm, 해남 10.8mm 등이다.

광주시민들의 식수원인 동북담이 있는 화순 북면에는 34.5mm, 주암담이 있는 순천에는 16mm의 비가 내렸다.

저수량이 부족해 단수와 급수를 반복하고 있는 완도군 금일읍에는 22.5mm의 비가 내렸다.

기상청에 따르면 올해 광주·전남에서는 지난 11일 현재까지 총 315일 중 243일이 ‘가뭄 상태’였던 것으로 집계됐다. 가뭄은 앞서 6개월간 내린 비

의 양이 평년과 비교해 65%에 미치지 못한 경우에 해당한다.

올해 10월까지 광주·전남에는 평년 강수량 1304.8mm의 60%에 불과한 786.1mm의 비가 내리는 데 그쳤는데, 이는 1973년 기상청이 집계해 시작한 이래 가장 낮은 수치다.

빗물 부족으로 식수원도 말랐다. 상수도사업본부는 13일 기준 동북담과 주암담의 저수율이 각각 32.1%, 31.9%로 떨어졌으며 추가로 비가 오지 않을 경우 두 댐은 내년 3월에 바닥을 드러낼 전망이라고 밝혔다.

상수도사업본부는 주말 사이 내린 빗물이 댐으로 흘러들어도 저수율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

민현기 기자 hyunki@kwangju.co.kr

## 돌보던 중증장애인 등친 입주간병인

현대전화 잠금패턴 풀어 1억여원 빼돌려...징역 2년 선고

50대 입주간병인이 자신이 돌보던 장애인의 돈 1억여원을 빼돌리다 적발돼 실형을 선고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10단독 김정민 판사는 컴퓨터 등 사용자,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50)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피해자 측의 배상명령 신청도 받아들여 편취금 638만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A씨는 중증 뇌병변으로 인지장애를 겪고 있는 피해자 B(57)씨의 현대전화 잠금 패턴을 알게된 것을 계기로 지난 7월 7일부터 이틀간 8회에 걸쳐 9900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약속한 기간동안 간병서비스를 제공할 능력이 없었음에도 638만원의 간병비를 선지급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지난 4월 23일부터 7월 8일까지 광주시 광산구 B씨의 아파트에 머물면서 입주간병인으로

일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B씨를 간병하며 우연히 피해자 현대전화의 잠금패턴을 알게 됐고, 오픈뱅킹에 접속해 피해자의 계좌에서 1억여원에 가까운 돈을 이체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A씨는 B씨의 가족에게 “투자를 하고 있는데 급전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줬는데 아내가 알게 되면 간병인을 해고해 된다” 등의 말을 하면서 ‘가뭄을 해주면 간병비에 전담하겠다’는 식으로 속여 6회에 걸쳐 간병비를 선지급 받았다.

재판부는 “A씨는 편취한 돈으로 도박자금·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 지지 않고 피해자측이 엄벌을 요구하고 있는 점, 수차례 처벌 전력과 양벌기간 방행을 또 저지른 점 등을 두루 고려했다”고 양형배경을 설명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 영광·장성서 안타까운 교통 사망사고

읍주차량에 치여 군인 사망...주차하던 남편 차량에 치여 아내 숨져

해안 경계 근무 중이던 병사가 전역을 5개월여 앞두고 읍주운전 차량에 치여 숨지고, 주차하던 남편의 차량에 아내가 치여 숨지는 등 주말사이 전남에서 안타까운 교통 사망사고가 이어졌다.

경찰청은 13일 술을 마신 채 운전하던 해당 군인 3명을 사상계 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대상 위험운전치사상)로 40대 운전자 A씨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11일 밤 11시 20분께 영광군 흥농읍의 한 해안가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다 정차돼 있던 군용차량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군용차량 뒤에 서 있던 병장 B(22)씨가 가드레일 사이에 끼여 숨졌고, 병장 C(22)씨는 허리 타박상, 일병 D(21)씨는 오른쪽 발목 골절상을 입었다. 당시 A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

허취수 수준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우회전을 해야 하는 곳에서 직진해 길가에 정차돼 있던 군용차량을 들이받은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이에 앞서 같은 날 오후 3시 20분께 장성군의 한 주택 마당에서 남편의 운전미숙으로 인해 아내가 숨졌다.

남편인 E(71)씨가 운전한 스타렉스 차량이 갑자기 튀어나가 차량 앞에 있던 E씨의 아내 F(여·65)씨가 차량과 감나무 사이에 끼여 숨졌다. 주변에 있던 60대 지인 2명도 타박상 등의 부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E씨는 “이삿짐을 옮기려 주차를 하던 중 브레이크 페달과 가속 페달을 헛갈려 잘못 밟았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천홍희 기자 strong@kwangju.co.kr

## 광주 장애인 복지시설 화재

65명 대피...인명피해 없어

광주 장애인 복지시설에서 화재가 발생해 입소 장애인과 시설 관계자 등 65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광주북부소방은 13일 오전 9시에 광주시 북구 자야동의 한 4층 규모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서 화재가 발생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고 밝혔다.

화재당시 시설 안에는 입소 장애인 59명과 직원 6명 등 총 65명이 있었으나 모두 대피해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입소자들은 스스로 몸을 움직일 수 있는 경증 장애인들로, 화재 발생 직후 직원 도움을 받아 시설 밖으로 대피했다는 것이 소방측의 설명이다.

소방당국은 입소자들이 속식을 해결하며 직업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인 시설 4층 남상층 수용시설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천홍희 기자 strong@co.kr

## 법원 경매부동산의 매각 공고

Table with 5 columns: 1.매각물건의 표시 및 매각조건, 2.매각물건, 3.매각방법, 4.매각장소, 5.매각방법. Includes details for various properties like '아파트', '대지/임야/전답', and '상가/오피스텔/근린시설'.

Table with 5 columns: 사건번호, 물건번호, 소재지 및 면적, 용도, 감정평가액, 비고. Lists multiple real estate auction cases with details on location, area, and valuation.

5. 매각허가 및 대금납부
6. 소유권이전 및 인도
7. 주의사항
8. 기타
9. 문의사항
10. 유의사항